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32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윤2월 29일)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온다 부처님오신날! 매년 오는 날이지만 매년 새롭고 반가운 그날, 부처님오신날이다. 매년 그날이 새롭게 반가운 것은 속세의 힘겨움 또한 끊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모든 고통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일러주신 부처님, 부처님이 또 우리 곁으로 오고 계신다.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4월 12일 서울 조계사 신도회 회원들이 제등행렬에 들고 나갈 행렬등을 만들고 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열암곡 마애불 세우기 시나리오案 나왔다

경주시 · 문화재청 '열암곡 마애불 보존' 학술대회서

3D 수치모델 통해 입불 방안 모색

56:44로 상부하중이 하부보다 높아

인양벨트 기립 시 2개 이상 안정적

마애불 본래 위치, 현 '직상부' 추정

불상 바라보는 방향, '서북서' 예상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의 역점 추진 사업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기 위한 시나리오 가안이 나왔다.

경주시(시장 주낙영)와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4월 14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상의 가치와 보존' 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열암곡 마애불의 역사적 가치를 비롯해 입불(立佛), 보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특히, 마애불 입불의 최대 관건이었던 기립방안에 대한 시나리오가 제시됐으며, 입불 위치 및 불상이 바라보는 방향에 대한 모색도 이뤄졌다.

박상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경주 열암곡 마애불상의 디지털 복원 및 거동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에서 마애불상 일원에 대한 3차원 모델링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립을 위한 시나리오 가안을 제시했다.

박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의 체적은 31.027㎥이며, 질량은 약 80t으로 나타났다. 하중은 비율은 56:44로 상부하중 비율이 하부하중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수석연구원은 "마애불상 거동시 상부하중이 하부하중보다 큰 것으로 판단돼 불상의 상부 쪽을 우선적으로 거동시켜야 불상이 안전하게 거동 가능하다"고 봤다.

마애불을 거동하는 방안으로는 인양벨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3차원 수치모델로 확인한 결과 1개보다는 2개 이상의 인양벨트를 활용했을 때 안정성이 높고, 이동식 크레인인 '지그' 와 인양벨트를 함께 가동했을 때도 높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수석연구원은 "마애불을 들어 올릴 때 인양벨트의 강성은 충분해 이동과정에서 끊어지거나 추가적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가정했고, 지그 역시 강성이 충분함을 전제로 했다"면서 "지반의 경우 불상을 들어올리거나 지그 활용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이동을 담당하는 레일이 필요한 부분도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광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주 열암곡 마애불상 주변정비 이력 및 현황' 을 통해 마애불의 본래 위치와 불상이 바라보는 방향을 추정했다.

이 연구위원은 "훼손된 문화유산의 복원은 최초 조성 당시 있던 위치에 동일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면서도 "열암곡 마애불상은 주변 여건이 열악하고 원위치가 아직 밝혀지지 않는 상태여서 원위치 복원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마애불상의 원래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 부조된 불상이 큰 훼손이 없는 점과 주변 노두가 발달돼 있는 절리의 상태를 고려하면 현 위치에서 바로 세운 위치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위원은 열암곡 마애불이 전도된 위치의 '직상부' 를 추정 본래 위치로 봤다.

이에 대해 그는 "열암곡 마애불상 직상부 20~30m로 주능선이 발달하고 있으며, 전도된 마애불상의 장축의 방향이 전도 방향과 평행해 전도시 여러 차례 굴러내림(회전)이 발생하기 어렵다"면서 "전도 과정에서 다수의 회전이 있었다면 마애불상의 손상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추정 이유를 설명했다.

마애불의 자세와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는 불상과 주변 암석 노두에서 채취한 시료를 통한 '대자율이방성 분석' 으로 측정했다. 그 결과 열암곡 마애불상 방향이 282° 방향, 즉 서북서 방향이었음이 확인됐다.

또한 현장지질지표조사를 통해서는 280~297°의 방향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위원은 "조사 결과 마애불상의 고부조가 가능한 암벽은 동서 방향의 주향과 남북 방향의 주향을 갖는 암석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현재의 전도 형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도시 약 90°의 수평회전운동이 수반돼야 해 남북 방향의 주향을 갖는 암벽에 서쪽을 바라보는 방향성을 보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아미타요양병원 병원불자聯 MOU 체결

전문 의료인력 대한 자문 등 승려복지 활성화 협력하기로

5월 3일 개원…제2병동 추진

조계종이 처음으로 직영하는 불교요양병원이 5월 3일 개원을 앞두고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류재환, 이하 병불련)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병원 발전과 승려복지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의료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대표이사 호산)와 병불련은 4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조계종 승려복지 활성화 적극 협력 △전문 의료인력에 대한 자문역할 △각종 교육, 행사 협력 사업 공유 등에 상호 협력한다.

업무협약식에서 의료법인 승려복지 대표이사 호산 스님은 "연꽃마을 각현 스님의 원력과 삼천사 성운 스님의 보현행원,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결단 그리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승려복지에 대한 관심과 추진력으로 한국불교 사상 최초로 조계종단 직영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이 탄생할 수 있었다"면서 "병불련 회원들도 합심, 요양병원 운영에 큰 힘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재환 병불련 회장은 "스님들을 위한 요양병원은 25년간 의료봉사를 해온 병불련의 큰 서원이기도 했다"면서 "앞으로 병불련 회원들과 합심,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이 스님 전문 요양병원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종단적인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의료전문 인력 확보와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의 전신인 파라미타요양병원은 연꽃마을 각현 스님이 2008년 설립했다. 2014년 각현 스님 원적 후 운영을 맡아온 삼천사 성운 스님은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병원 운영을 수차례 요청했고 자승 스님은 종단이 직영하도록 결단을 내렸다. 스님 전용 요양병원은 진우 스님 체제의 37대 집행부의 핵심종책이었다. 지난 1월, 성운 스님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종단 직영 요양병원이 탄생하게 됐다.

요양병원은 현재 5월 3일 개원식을 앞두고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공간으로 변모 중이다. 의료법인 승려복지는 중장기적으로 80병상 규모의 제2병동을 신축, 250병상의 시설을 확충해 스님들을 위한 전문요양병원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직영
의료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
아미타 불교요양병원 개원식

출가에서 열반까지 종단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고 노후에도 안정되게 지낼 수 있는
종단 직영의 아미타 불교요양병원을 개원하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일 시 불기2567(2023)년 5월 3일(수) 오후 2시
장 소 아미타 불교요양병원(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녹배길 139)
후원동참 국민 601501-01-456325(예금주 : 의료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
문 의 02) 2011~1727, 1981

의료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真愚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